

완도 출신 '바람의 여왕' 이소미, 제주 강풍 뚫고 우승



11일 제주 서귀포 롯데스카이힐제주CC에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FR 3번 홀에서 이소미가 아이언 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 때 골프 입문한 '최경주 키즈' 백사장·연습장 등서 샷 갈고 닦아 장하나와 접전 속 끝까지 선두 유지 KLPGA 롯데렌터카 오픈 정상에 상금랭킹·대상포인트 1위에 올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년 차인 완도 출신 이소미(22)가 2021년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소미는 11일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 스카이·오션 코스(파72)에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6언더파 282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휴엔케어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데 이어 6개월 만에 통산 2승 고지를 밟았다.

우승 상금 1억2600만원을 받은 이소미는 개막전 우승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상금랭킹, 대상 포인트 등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6개월 전 바닷가에 위치한 전남 영암 사우스링

스 영암 컨트리클럽에서 바닷바람을 뚫고 생애 첫 우승을 따냈던 이소미는 이번에도 나흘 동안 선수들을 괴롭힌 제주 바람을 거뜬히 이겨냈다.

작년까지 5차례나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섰지만, 모두 역전을 허용했던 이소미는 이날은 13승을 올린 현역 최다승 기록 보유자 장하나(29)와 통산 5승의 이다연(24)을 상대로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이소미는 3번 홀(파4) 보기로 이다연, 장하나와 공동 선두를 허용했지만 6번 홀(파4)에서 한 발짝 거리에 붙이는 송곳 아이언 샷으로 이날 첫 버디를 잡아내고 7번 홀(파4)에서 7m 버디 퍼트를 떨구 주도권을 되찾았다.

5번 홀(파4) 보기에 이어 6번 홀(파4) 두 번째 샷 OB를 내며 2타를 잃은 이다연이 우승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이소미와 장하나의 2파전이 됐다.

8번 홀까지 2타를 줄인 장하는 9번 홀(파5) 이소미의 보기를 틈타 다시 1타차로 따라붙었다.

장하는 13번 홀(파4) 버디로 이날 두 번째 공동 선두로 올라왔지만, 이소미는 15번 홀(파5)에서 4m 버디 퍼트를 집어넣고 다시 달아났다.

승부는 16번 홀(파4)에서 결정났다.

장하는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벗어났고, 칩샷

이 너무 길게 떨어진 탓에 3퍼트로 통탄의 더블보기를 적어냈다.

2개 홀을 남기고 3타차 여유를 누린 이소미는 17번 홀(파3)에서 짧은 파퍼트를 놓치는 3퍼트 실수를 했지만, 18번 홀(파5)을 파로 막으면서 2타차 우승을 완성했다.

1언더파 71타를 친 장하는 2타차 준우승(4언더파 284타)에 만족해야 했다. 이다연은 6타를 잃고 공동 9위(2오버파 290타)로 내려앉았다.

2언더파 70타를 친 정슬기(26)가 3위(1언더파 287타)에 올랐다.

이날 하루에 언더파를 친 선수는 불과 9명에 그쳤고, 나흘 함께 언더파 스코어를 낸 선수는 3명뿐이다.

완도 출신인 이소미는 최경주와 같은 완도 화흥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최경주의 활약으로 완도에 골프 아카데미가 유행했고, 이소미도 화흥초 골프부에 들어가 꿈을 키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최경주를 직접 만나 그림 쥐는 법과 골프를 치는 마음가짐을 배우기도 했다. 완도는 골프를 연습하기에 환경이 다소 열악했으나, 이소미는 오래된 연습장과 백사장에서 샷을 갈고 닦으며 꾸준히 실력을 키웠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시청 전용태 근대5종 월드컵 우승

사격+육상에서 역전 우승 세계 랭킹 2위로 도약 올림픽 시즌 기분 좋게 출발



전용태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시청)가 1년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용태는 대한민국 근대5종의 새 역사를 쓸 기대주로 꼽힌다. 그의 목표는 대한민국 근대5종 첫 메달이다. 이미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따 '한국 선수 1호'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전용태는 10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21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2차 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1457점을 획득, 로베르트 커서(헝가리·1455점), 일라 플라즈코프(불가리아·1451점)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전용태가 UIPM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2018년 5월 헝가리 케치케메트 대회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입상은 지난해 2월 말 이집트 카이로 월드컵 준우승 이후 1년여 만이다.

이 대회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대회가 중단되며 실전에 나서지 못한 채 훈련에만 매진했던 전용태는 모처럼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이날 결승에서 전용태는 수영 2위, 펜싱 3위에 자리했고, 승마까지 포함한 4위로 시작한 레이저런(사격+육상)에서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국제근대5종연맹은 "전용태가 도쿄 올림픽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며

우승의 의미를 평가했다.

전용태는 국제연맹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오랫동안 대회에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복귀하게 된 것은 환상적"이라며 "올림픽도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랭킹 2위로 도약한 전용태는 15일부터 소피아에서 이어지는 3차 대회에도 출전해 연속 메달 사냥에 나설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주 '남구 유소년 FCK' 축구클럽 창단



광주시 남구 유소년 FCK(감독 박민·코치 이성범) 창단식이 지난 10일 송하동 터프필드 풋살장에서 열렸다. <남구 유소년 FCK 제공>

'Team One(팀원) FCK'를 주축으로 한 광주시 '남구 유소년 FCK'(감독 박민·코치 이성범) 창단식이 지난 10일 송하동 터프필드 풋살장에서 열렸다.

팀원 클럽 창단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운영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박희을 남구 의장, 신이석 남구 축구협회장, 선수들이 함께 했으며 창단식이 끝난 후에는 자체 친선경기도 치러졌다.

축구 전문클럽인 '팀원 FCK(FC Kids)'는 현재 7세 유아부터 중1 청소년까지 축구를 좋아하는 100여 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다. 남구 송하동에 3개면의 풋살 전용구장과 1개면의 실내 미니구장도

갖추고 있다.

남구 유소년 FCK는 앞으로 팀원 FCK와 함께 주말 취미반, 주중 선수반을 운영하면서 기본기 훈련, 체력 단련, 드리블·리프팅 등 볼 감각을 최상으로 이끌어 축구 영재들을 육성해 나갈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팀원 FCK 이성범 감독은 "축구선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생활체육, 취미활동으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아이들에게 패어플레이 정신을 심어주고 건강한 심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쿄올림픽 D-100...한국 "금 7개 종합 10위 목표"

진천선수촌 선수들 맹훈련

배구 코트에서 총복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제갈공명' 신치용(66) 선수촌 장에게도 도쿄올림픽은 처음으로 겪는 도전의 장(場)이다.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역병이 낳은 불확실성 탓이다.

신 선수촌장은 8일 "어떻게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다 불확실해 선수나 지도자들이 더욱 불안해한다"며 "이들에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 두

려울 게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8일 현재 10개 종목 선수와 지도자 220명이 현재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다. 선수촌 바깥에서는 14개 종목 348명이 구슬땀을 흘린다.

신 선수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진천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올림픽 개막 D-100일을 계기로 방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 선수촌 입촌 인원을 400명으로 늘리고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 체제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신 선수촌장은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목표를 "금메달 7개와 종합 순위 10위 달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양궁과 태권도가 대회 초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계획대로 금메달 4~5개를 따준다면 목표 달성이 수월해질 수 있다"며 "펜싱, 여자골프, 사격과 자전거, 근대5종 종목에서도 추가 금메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구, 탁구, 레슬링, 유도 등 여러 종목이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관중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의 일반적인 응원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신뢰를 보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2관	디스토피아, 최면
3관	고질라 VS.
4관	모탈 컴бат
5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6관	자산어보, 최면
9관	모탈 컴бат
7관	씨네커를
8관	씨네커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1
박혜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33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